

특 집

환경관리인 777인에게서 듣는다

환경분야, 産學 硏 協 同 안 된다

—8%만이 지도단속결과 만족—

본연합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사이에 협의회별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7백 77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 관리인의 업무만족도 및 근무실태에서부터 기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행정관청의 지도단속과 관련된 제반문제 그리고 현행 법적·제도적측면의 개선점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편집자>

환경관리인 777인에게서 듣는다

이번 의식조사에 응답한 환경관리인의 성별은 남성 87%, 여성 13%로 일반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 36%에는 못미치고 있으나, 환경관련학과의 여학생배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대학원 1.5%, 대학 46%, 전문대 38%, 고교 14%, 기타 0.5%로 84%가 대학 및 전문대출신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분야로는 25%가 환경관련학과를 졸업했다.

나머지 75%중에서는 화공이 24%를 차지했고 그외 기계공학(8%), 생물학(3%), 금속공학(2%)이 주류를 이루었다. 환경관련학과 전공자가 2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환경관련학과의 설립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는 점과 '7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가시험이 이 공계출업자에게도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자격증현황은 수질2급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1급 25%, 수질1급 22%, 대기2급 20% 소음진동1급 1%, 소음진동2급 0.5%, 기타 3%의 분포를 보였다. 이 가운데 복수자격증소지자는 전체자격자의 20%를 점유하였고 기타 자격증으로서는 주로 열관리, 산업안전관리, 위생사, 화공기사 등이었다.

이들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한 총경력기간과 매우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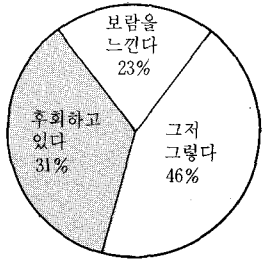
이 한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나 환경관리인으로서의 총 경력은 대략 1~7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8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관리인 비율이 관리인으로서의 총 경력에 8년 이상된 관리인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인력채용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과거에는 업체내의 인력중에서 환경인력을 직접 배출해냈지만, 요즘에는 이같은 자체노력보다는 외부영입을 선호해 기자격취득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기업체 내에서의 환경업무라는 직종이 전망이 불투명한 부서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인여건의 미성숙과 동기부여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곧 직장내에서의 진급의 어려움과도 연결되며, 이직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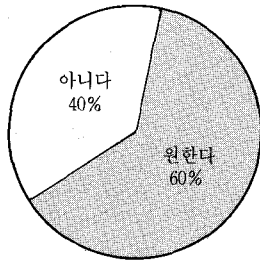
즉 응답자의 직책 및 직위를 보더라도 기사 51%, 주임 7%, 대리 20%, 과장 9%, 기타 13%를 나타내(응답자중 과장이상급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7%가 과장이하의 직급에 머물고 있어 환경부서가 아직도 하위조직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줬다.

설문내용은 크게 5유형, 즉 첫째, 환경관리인의 업무만족도 및 근무실태 둘째, 환경관리인의 의견이 기업체에 반영되는 정도와 회사 또는 기업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셋째, 행정관청의 지도단속과 관련된 문제, 넷째로는 현행 법적제도장치의 개선점 그리고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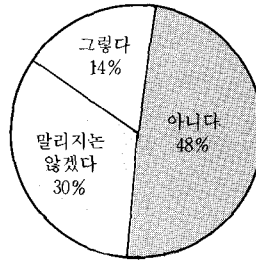
질문	응답	응답 내 용								
최 종 학 력		대학원 1.5%	대학 46%	전문대학 38%	고교 14%	기타 0.5%				
직책 및 지위		기사 51%	주임 7%	대리 20%	과장 9%	기타 13%				
종별구분	대기	1종 18%	2종 15%	3종 8%	4종 12%	5종 14%				
	수질	1종 7%	2종 8%	3종 9%	4종 18%	5종 28%				
현회사근무년수		1년미만 11%	1년~3년 45%	4년~7년 24%	8년~15년 16%	16년이상 4%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한 총경력		1년미만 9%	1년~3년 47%	4년~7년 27%	8년~15년 15%	16년이상 2%				
근무소속 부서	환경전담부서	31%		부 27%	과 50%	계 20%	기타 3%			
	기 타	69%								
자격증 소지	대기	1 25%	수질	1 22%	소음	1 1%	열관리	위생사	화공	복수
	(급)	2 20%	(급)	2 28%	(급)	2 0.5%	1%	1%	0.3%	20%
전공학과	환경학 25%		화학공학 24%		기계공학 8%					
	생물학 3%		금속공학 2%		기 타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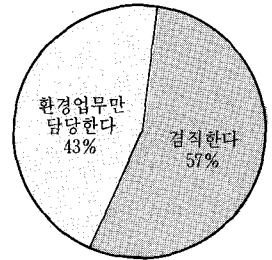
〈질문〉 환경업무의 만족도



〈질문〉 타업무로의 이직을 원하는가



〈질문〉 환경관리인직을 2세나 후배에게 권하겠는가



〈질문〉 타업무와 결직하는가

으로 환경단체활동과 당국의 환경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및 연합회활동에 건의할 의견 등으로 대별하였다.

단속결과 책임커 고충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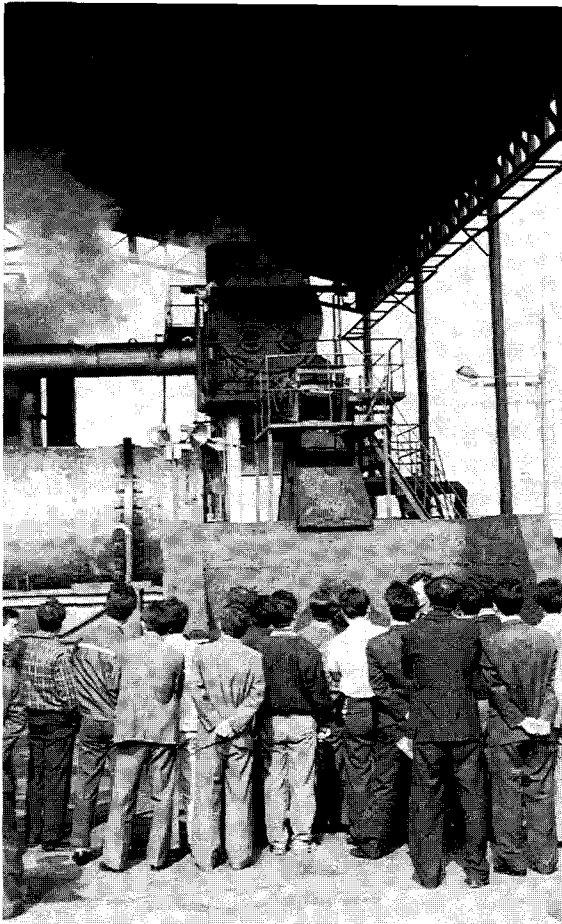
우선 환경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보람을 느낀다」 23%, 「후회하고 있다」 31%, 「그저 그렇다」 46%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조사결과의 만족도 11%와 비교해 불매 환경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만족 및 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후회하고 있다는 그룹에게 그 이유를 묻자 첫번째 이유로서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책임(31%)을 들었고, 다음으로는 근무여건의 열악(25%), 진급 및 급료 등의 불만족, 양벌규정 등 벌칙의 두려움(각각 18%), 회사에서의 소외감(8%)을 지적해 기업과 행정관청의 중간에서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불만등으로 고충이 많음을 시사했다.

이것은 곧 타업무로의 이직을 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전체 응답자의 60%가 이직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인직을 「후배나 2세에게 권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8%, 「말리지는 않겠다」 38%, 「권하겠다」는 14%를 나타내 '환경관리인'을 유망직종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는 역으로 이 직업을 당대에서 끝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향후 환경분야 발전에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다.

관리인직을 후회하고 있다는 그룹에게 그 이유를 묻자 첫번째 이유로서는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책임(31%)을 들었고, 다음으로는 근무여건의 열악(25%), 진급 및 급료 등의 불만족, 양벌규정 등 벌칙의 두려움(각각 18%), 회사에서의 소외감(8%)을 지적해 기업과 행정관청의 중간에서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불만등으로 고충이 많음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사업장내의 전담부서 설치여부는 「없다」가 55%, 「계획중이다」 8%, 「있다」가 3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의 「있다」 27%를 감안한다면 10%증가한 것으로 폐놀오염사건 및 국내의 환경동향과 관련하여 달라진 기업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규모가 대기 1·2종 규모 33%, 수질 1·2종규모가 15%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체제에서 관리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될지는 의문이다.



겸직자가 57%를 차지하는 것은 아직도 전담부서가 설치된 업체가 적고, 기업측이 인력활용차원에서 환경외적인 업무까지 맡겨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생산관리와의 겸직이 많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오염물질배출의 원천인 생산라인과 환경부서와의 연계는 환경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가 37%임에도 불구하고 타업무와 겸직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7%에 달했다. 겸직업무내용은 생산관리, 실험실, 총무, 공무, 안전관리, 자재관리, 열관리의 순서였다. 이와같이 겸직자가 57%를 차지하는 것은 아직도 전담부서가 설치된 업체가 적고, 기업측이 인력활용차원에서 환경외적인 업무까지 맡겨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생산관리와의 겸직이 많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오염물질배출의 원천인 생산라인과 환경부서와의 연계는 환경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생산부서와의 연계성 높아져

환경업무의 관장범위 또한 방지시설운전 66%, 환경인·허가 행정 66%, 폐기물관리 63%, 환경홍보교육 30%, 생산시설현장 관장 26%, 주위환경영향분석 14%, 원료투입 및 조정 11%, 물자절약 10%, 기타 3%로 응답, 평균 3개 이상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홍보교육, 생산시설현장 관장, 주위 환경영향분석, 원료투입 및 조정업무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생산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환경업무가 점차 종합업무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업무종사자는, 1~3명의 인원이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4~6명 20%, 7~10명 8%, 11명 이상은 9%를 나타내 전담부서가 설치된 대기업에는 인원수가 많음을 보여줬다.

관리인 의견 선별해서 수용

다음으로는 환경관리인의 의견이 기업체에 반영되는 정도와 회사 및 기업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업체내의 환경개선 및 설비선택의 결정에 대한 관리인의 관여도의 경우 「선별해서 반영된다」 72%,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 18%,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

다」10%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리인의 건의에 대한 기업주의 호응도는 「소극적이다」가 46%, 「적극적이다」 46%, 「비협조적이거나 묵살한다」가 8%로 관리인의 의사는 반영되지만, 대체로 기업주의 호응이 낮아 일하는데 애를 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조사때의 「호응도가 높다」 32%, 「보통이다」 50%, 「낮다」 18%와 비교해 볼때 다소 나아진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인환경선언후 변화없어

한편 지난 6월 3일 선포된 기업인환경선언 이후 사내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응답, '기업인환경선언'이 '선언'이상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전시행정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게다가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한 나

머지 23%도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명시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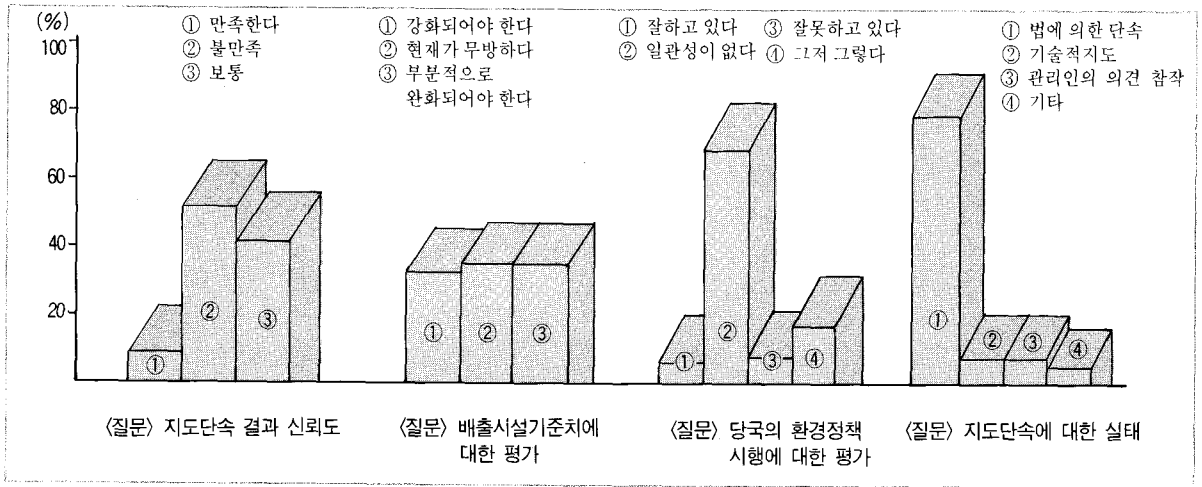
업체 89% 환경설비에 문제

한편 자사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견해는 「완벽하다」 11%, 「부분적보완이 필요하다」 80%, 「전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9%로 89%가 방지시설의 교체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반적으로 업체의 환경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점은 환경설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응답자의 32%가 설비의 노후화를, 19%가 용량부족으로 인한 정상처리곤란을, 18%는 환경기술낙후로 효율이 유지안될때를, 14%는 값싼 환경설비설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환경설비가동 중의 문제점으로는 생산부서의 비협조(35%), 회사의 지원부족(31%), 운전기술

질문내용	응답내용		
귀사의 환경개선 및 설비 선택에 대한 귀하의 관여도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	18%	<p>선별해서 반영 72%</p>
	전혀 관여되지 않고 있다	10%	
	선별해서 반영된다	72%	
귀사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견해는	완벽하다	11%	<p>부분적 보완 80%</p>
	부분적 보완 필요	80%	
	전체적인 변경 필요	9%	
귀사의 환경설비에 있어서 문제점	설비의 노후화	32%	<p>설비의 노후 32%</p>
	용량부족으로 정상처리곤란	19%	
	환경기술 낙후로 효율이 유지안됨	18%	
	값싼 환경설비 설치	14%	
환경설비 가동중의 문제점	생산부서의 비협조	35%	<p>생산부서의 비협조 35%</p>
	운전기술 미숙	17%	
	회사의 지원부족	31%	
귀하의 건의에 대한 기업주의 호응도	적극적이다	46%	<p>소극적 46%</p>
	소극적이다	46%	
	매우 비협조적	3%	
	중간 간부가 묵살한다	5%	
기업체에서 환경오염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대책	환경시설업체의 기술향상 32%	사업주의 인식향상 33%	<p>사업주 인식향상 33%</p>
	당국의 정책강화 9%	환경관리인의 제도개성 16%	
	환경설비 투자 17%	기타 0.6%	

환경관리인 777인에게서 듣는다



미숙(17%), 기타(17%)로 응답,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아직도 소비성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주의 낮은 환경인식이 설비가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환경오염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대책으로서도 33%가 사업주의 인식, 24%가 환경시설업체의 기술향상, 17%가 환경설비투자, 16%가 환경관리인의 제도개선, 9%가 당국의 정책강화등을 지적,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방지시설업체와 문제 상담

한편 기업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설비의 문제점으로 환경기술의 낙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5%가 방지시설업체와 32%는 동료환경관리인과 상담한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0%, 환경연구기관 7%, 환경학과교수 2%로 문제발생시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과 연구실의 좋은 이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론과 실체를 연결하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동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응답자들은 자사의 환경문제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0%가 폐기물문제를 꼽았다. 그다음이 수질 27%, 대기 21%, 소음·진동 8%, 기타 4% 순으로 나타나 최근 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과 처리비용의 상승 등 여러조건으로 인해

기업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45%가 방지시설업체와 32%는 동료환경관리인과 상담한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환경지도단속공무원 10%, 환경연구기관 7%, 환경학과교수 2%로 문제발생시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과 연구실의 좋은 이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론과 실체를 연결하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동체제구축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진통을 겪고 있는 업체의 현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업체마다 고심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의 해결 방향으로는 49%가 재활용, 30%가 제품수율향상 등 물자절약, 21%는 설비투자라고 대답,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방향으로 의식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환경업무결재체계는 대·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어 기사→사장에서부터 7~8단계를 거치는 경우까지 다양했는데, 대략 ① 기사→과(부)장→공장장→사장 ② 기사→과장→부장→전무→이사→사장 ③ 기사

→공장장→사장 ④ 기사→사장 ⑤ 기사→공장장→사무→전무→사장→회장 ⑥ 기사→과장→부장→공장장→고문→전무→부사장→사장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재단계가 복잡해 시간을 다투는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뿐 아니라 관리인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소신있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겨 한다.

단속결과 신뢰도 현저히 감소

다음으로는 행정관청의 지도단속과 관련된 문제점과 실태를 알아보았다.

행정관청의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만족 8%, 불만족 41%, 보통 51%로 지난해 조사결과의 만족 38%에 비해 신뢰도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줬다. 이는 7월부터 지도단속권이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우려됐던 전문성의 취약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신뢰도의 불만족은 곧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관리인의 책임소재와도 직결, 앞서 지적됐듯이 환경관리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환경공무원의 지도단속실태 또한 79%가 법에 의한 단속이라고 지적했으며 기술적 지도도 하고 있다와 관리인의

의견을 참작한다에는 8%씩 대답, 관리인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기술적인 자문이 미흡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준치, 부분적 완화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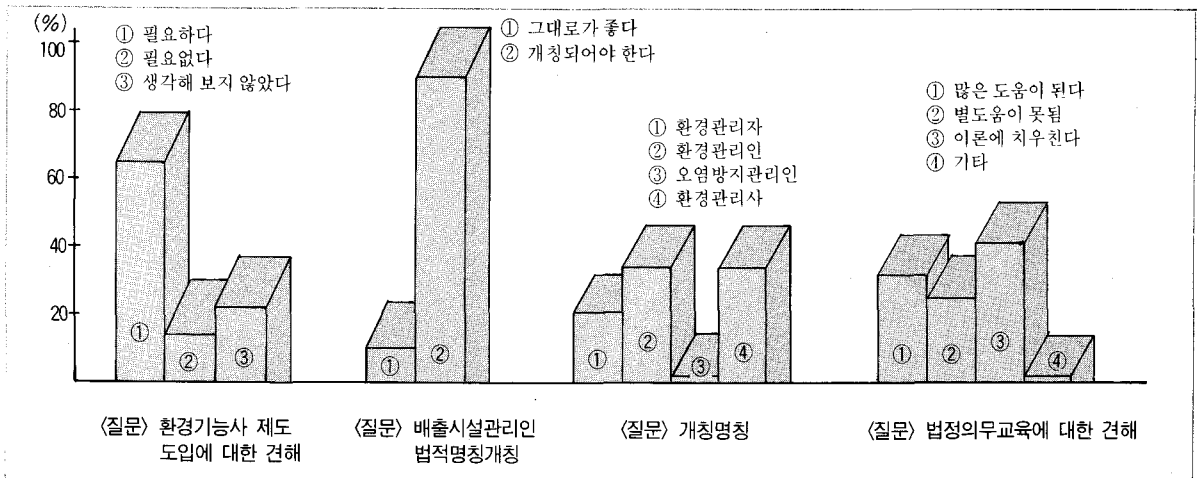
이와함께 현행 배출시설 기준치에 대한 평가는 강화되어야한다가 32%, 현재가 무방하다 34%, 부분적으로 완화되어야한다가 34%를 차지, 지난해 같은 질문에 각각 45%, 46%, 9%를 나타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부분적으로 완화되어야한다가 지난해 9%에서 25%증가한 34%를 나타낸 것은 올해 법이 강화되면서 기업체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즉, 현실과 법의 괴리가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법적명칭개칭 90% 지지

이번에는 현행 법적 제도장치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환경법상, 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에 대해서는 90%가 개칭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칭명칭은 환경관리인 34%, 환경관리사 34%, 환경관리자 21%, 오염방지관리인 1%로 응답했다.



본 연합회에서는 지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환경처에 배출시설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개칭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9월에는 2천명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명부와 건의서를 재차 제출한 결과, 환경처에서는 '환경관리인'이라는 명칭개칭안을 확정하여 이를 국회에 상정하였다.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가 대안없이 비판적이다, 31%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30%는 잘하고 있다고 대답, 환경관련단체의 의욕과 활동에 비해 전문가집단의 참여저조 및 재원부족으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역할은 인정하여 우리나라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되는 곳은 48%가 환경단체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환경지도단속관청 13%, 일반국민 11%, 기업 9%, 환경시설업체 9%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기능사 도입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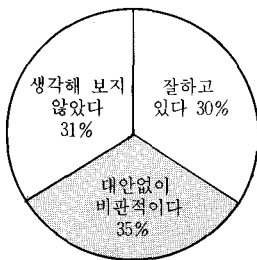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환경관리인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주의 환경의식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교육실시, 양벌규정개선 및 환경전담부서 설치의 명문화, 관리인의 소속을 공단이나 법인으로 하는 방안 등의 준공무원제도 실시, 그리고 환경기능사제도 도입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와관련, 본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능사제도 도입에는 64%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다른 기술분야의 경우 대부분 기사 밑에 기능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환경기사 밑에 기능사를 두어 방지시설의 운전은 기능사가 담당하고 환경사는 효율적인 방지시설의 확보나 오염물질 배출을 극소화하기 위한 생산공정의 개선, 자원회수 등 연구개발 차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환경정책시행 일관성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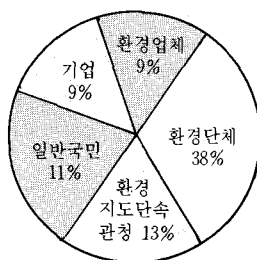
한편 현재 당국의 환경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가 69%, 그저 그렇다가 17%,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가 8%로 평가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7%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환경정책이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폐기물 44%, 수질 44%, 대기 11%, 소음·진동 1%의 순으로 업체의 환경보전에 문제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과 비슷하게 응답, 폐기물문제의 심각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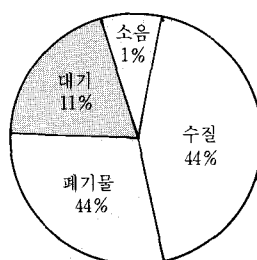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환경관련단체의 활동



(질문) 환경관련단체의 활동



(질문) 국가환경보전에 가장 공이 많은 곳



(질문) 우리나라 환경문제중 가장 심각한 분야

•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도

합성세제 및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1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	2
폐기물재활용	3
사내환경홍보	4

• 환경관리인연합회에 건의

권익옹호	1
기술세미나 개최 및 다양한 정보제공	2
법정교육실시	3
기업주의식향상	4

환경행정관청에 건의할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단속에 앞선 기술지도, 권위주의적인 단속탈피,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일관성, 환경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업주의 환경의식고취할 법적제도장치마련, 설비투자에 법적 강제장치 유도 등을 들었다.

의무교육, 이론에 치우친다

이들 환경법상의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41%가 이론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별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26%를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중 다수가 합성세제 및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등을 통해 환경오염예방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처리, 폐기물재활용, 사내홍보활동 등을 통해 '환경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외에 개인적으로도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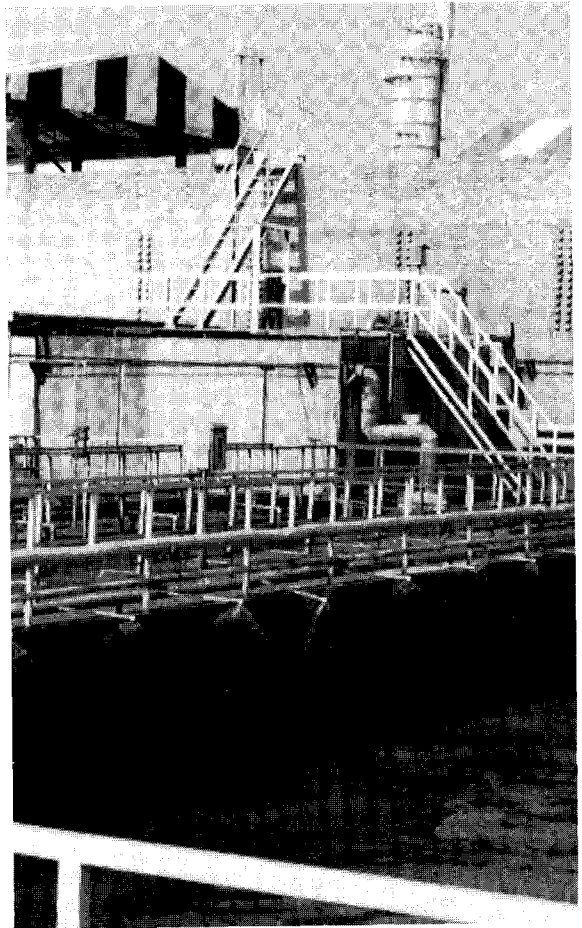
끝으로 회원들은 본 연합회에 권한 있는 압력단체로의 성장 및 회원 권익옹호, 기술세미나 개최 및 다양한 정보제공, 법정교육실시, 사업장방문을 통한 홍보 및 사업주인식향상에 앞장설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기업주 환경의식 바뀌어야

지금까지 살펴본것처럼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현안문제들, 즉 전담부서설치, 기업주의 환경의식제고를 위한 뒷받침,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기술상담을 전제로한 지도단속문제 등은 종전과 다름없이 도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방지시설업체의 기술이 낙후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45%가 방지시설업체와 상담한다는 아이러니컬한 답변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분야가 학교나 연구소의 도움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볼때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 국내 업체의 89%가 환경설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



현행 배출시설 기준치에 대한 평가는 강화되어야한다가 32%, 현재가 무방하다 34%, 부분적으로 완화되어야한다가 34%를 차지, 지난해 같은 질문에 각각 45%, 46%, 9%를 나타낸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부분적으로 완화되어야한다가 지난해 9%에서 25%포인트 증가한 34%를 나타낸 것은 올해 법이 강화되면서 기업체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즉, 현실과 법의 괴리가 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참조〉 설문내용

1.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귀하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보람을 느낀다() 2)후회하고 있다() 3)그저 그렇다()
2. 환경관리인직을 후회한다면 그 이유는?(해당자만 복수응답도 가능함)
1)근무여건의 열악() 2)지도단속결과에 대한 책임() 3)진급 및 급여 등의 불만족()
4)양벌규정 등의 벌칙의 두려움() 5)회사에서 소외감()
6)기타()
3. 환경법상 “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1)그대로가 좋다() 2)개칭되어야 한다()
4. 개칭되어야 한다면 어떤 명칭이 좋은가?
1)환경관리자() 2)환경관리인() 3)오염방지관리인() 4)환경관리사()
5. 환경관리직이 아닌 타 업무로 이직을 원하는가?
1)예() 2)아니오()
6. 귀사의 환경전담부서 설치여부는?
1)있다(부, 과, 계, 기타)() 2)없다() 3)계획중이다()
7. 귀사의 환경개선 및 설비선택의 결정에 대한 귀하의 관여도는?
1)본인의 결정에 따른다() 2)전혀 관여되지 않고 있다() 3)선별해서 반영된다()
8. 귀하는 사내에서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가?
1)환경 업무만 담당() 2)타업무와 겸직(겸직업무:)
9. 금년 6월 3일에 선포된 “기업인 환경선언” 이후 이에 대한 귀사의 조치는?
1)아무런 변화가 없다() 2)변화가 있다(내용:)
10. 귀사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1)완벽하다() 2)부분적 보완필요() 3)전체적인 변경필요()
11. 귀사에서 귀하의 환경업무에 대한 관장범위는?(해당란에 복수응답 가능함)
1)방지시설운전() 2)생산시설현장 관장() 3)환경홍보 교육() 4)원료투입 및 조정()
5)폐기물관리() 6)물자절약() 7)주위(주변)환경영향분석() 8)환경인·허가 행정()
9)기타:
12. 귀하의 건의에 대한 기업주의 호응도는?
1)적극적이다() 2)소극적이다() 3)매우 비협조적() 4)중간간부가 묵살한다()
13. 귀사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상담하는 곳은?
1)방지시설 업체() 2)동료 환경관리인() 3)환경학과 교수() 4)환경연구기관()
5)환경지도 단속공무원()
6)기타:
14. 환경행정관청의 지도 단속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1)만족() 2)불만족() 3)보통()
⊕ 불만족 이유(간단히):
15. 현행 배출시설 기준치에 대한 평가는?
1)강화되어야 한다() 2)현재가 무방하다() 3)부분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16. 기업체에서 환경오염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대책은?
 1)환경시설업체의 기술향상() 2)사업주의 인식향상() 3)당국의 정책강화()
 4)환경관리인의 제도개선() 5)환경설비 투자() 6)기타 :
17. 귀사의 환경업무 결제체제는?(예 : 환경기사⇨주부부장⇨공장장⇨사장)
 ()
18. 귀사의 환경업무 종사자 수는?() 명)
19. 환경기능사 제도도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1)필요하다() 2)필요없다() 3)생각해 보지 않았다()
20. 환경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견해는?
 1)잘하고 있다() 2)대안없이 비판적이다() 3)생각해 보지 않았다() 4)기타 :
21. 환경관리인 제도개선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건의 사항은?()
22. 현재 당국의 환경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는?
 1)잘하고 있다() 2)일관성이 없다() 3)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4)그저 그렇다()
23.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수질() 2)대기() 3)폐기물() 4)식수() 5)소음·진동()
24. 귀사의 산업폐기물처리의 해결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재활용() 2)설비투자() 3)물자절약(제품수율향상 등)()
25. 귀사의 환경설비에 문제가 있다면?
 1)설비의 노후화() 2)용량부족으로 정상처리 곤란() 3)환경기술 낙후로 효율이 유지안됨()
 4)값싼 환경설비 설치()
26. 환경설비 가동중 문제가 있다면?
 1)생산부서의 비협조() 2)운전기술미숙() 3)회사의 지원부족()
27. 환경공무원의 지도단속에 대한 실태는?
 1)법에 의한 단속() 2)기술적 지도도 되고 있다() 3)관리인의 의견 참작한다()
 4)기타 :
28. 귀하는 환경관리인직을 후배나 2세에게 권하고 싶은가?
 1)권하겠다() 2)아니다() 3)말리지는 않겠다()
29. 환경행정관청에 건의하고 싶은 말은?()
30. 귀사의 환경보전에 제일 문제되는 분야는?
 1)대기() 2)수질() 3)소음·진동() 4)폐기물() 5)기타()
31. 우리나라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1)환경지도단속관청() 2)환경단체() 3)일반국민() 4)기업() 5)환경시설업체()
 6)기타()
32. 환경관리인연합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은?()
33. 귀하가 개인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이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
34. 환경법상의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많은 도움이 된다() 2)별도움이 되지 못한다()
 3)이론에 치우치고 있다() 4)기타()
 ⇨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내용을 간단히 :